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 가족 단위 피서지로 자리매김

폭염 불구하고 1만 6천여 명 방문, 체류형 관광 효과 이끌어

곡성군은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24일 까지 임시 개장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이 마지막 날 방문객 1천 여 명을 넘기며 한 달간 총 1만 6천여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섬진강기차마을 어린이 물놀이장은 요술랜드 인근 약 1만㎡ 부지에 최장 79m 워터슬라이드 2개와 어린이 조합 놀이대 5개를 설치하고 열대 야자수 포토존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그늘막, 물놀이 용품 대여소, 샤워실, 물품보관소 등의 편의시설을 강화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더불어 더위에 지친 어린이 방문객을 고려해 정문에서 물놀이장까지 캐비닛 스터틀을 운영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

안전관리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수질 검사뿐만 아니라 매일 시설을 점검하

고, 배치된 전문 안전요원들이 어린이들을 수시로 주시하며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물놀이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또한 운영시간마다 간단한 청소와 안전 점검을 추진해 무사고로 운영을 마칠 수 있었다.

곡성군이 올여름 새롭게 선보인 어린이 물놀이장 입장객은 일 최대 1,526명을 기록했고, 만족감을 느낀 이용객들이 5회차 까지 재방문하는 등 주말과 휴일에는 최대 3,8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물놀이장을 찾은 외부(유료) 관광객은 전체 방문객의 93.7%로 집계되며 기차마을 내 레일바이크, 증기기관차, 전시체험 등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효과를 이끌었다.

올해 물놀이장 개장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으며 폭염에 따른 유동인



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여가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계절별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쓰

고,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 물놀이장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 조성, 안전관리 등을 보강해 더욱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곡성/이경수 기자



장흥군, 조생종 벼 '조명1호' 첫 수확

기후 변화 극복한 결실, 햅쌀 조기 출하로 소득 향상

장흥군은 지난 24일 장흥읍 연산리 일원에서 올해 첫 벼 수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첫 수확의 주인공 임병석씨는 지난 4월 18일 조생종 벼 '조명1호'를 모내기한 뒤, 이삭고온과 집중호우 등 날씨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확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 수확한 조명1호는 밥맛이 우수하고 수발아에 강해 꾸준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특히 출하 시기가 빨라 추석 전 햅쌀 수요는 물론 농번기철 노동력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장흥군은 이번 첫 수확을 기점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벼 적기 수확과 고품질 쌀 생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삭기후 변화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와 노력 덕분에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우리 지역 농업인의 땀이 담긴 햅쌀을 소비자들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흥군 제공

장성군이 9월 한 달간 'C(씨)형 간염 조기 발견사업'을 추진한다.

C형 간염은 간경변증과 간암의 주요 원인이 되는 감염병으로, 비위생적인 시술을 받거나 위생도구 공동 사용 등을 통해 감염된다. 감염 초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정기 검사를 통해 일찍 발견하는 것이 최선이다.

완치율은 80%로 높은 편에 속한다. 조

장성군, 9월부터 'C형 간염 조기발견사업' 추진

초기 증상 없어 선제적 검사 중요... 무료 검사·상담 지원

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수록 완치 가능성이 높아진다.

'C형 간염 조기발견사업'은 선제적인 C형 간염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시행하는 사업이다.

검사는 간이검사 키트를 활용한 항체검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검사와 상담은 무료다. 20세 이상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장성군보건소에 방문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양성으로 확인되면 의료기관 안내, 보건교육, 건강상태 확인(모니터링)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사업의 목적이 있다"며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는 관내 전통 시장, 카페,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 5만 원 이상 소비한 고객에 대해 동반 2인까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30% 할인해주는 '지역상생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센터 입장 시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 혜택을 받은 이용객은 2천7백

완도해양치유센터, 지역에서 5만 원 소비하면 30% 할인

관내 시장, 카페 등 소비 고객 대상 해양치유 전 프로그램 할인

여 명으로 센터 이용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도해양치유센터는 해양 기후, 해수, 해조류 등 다양한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 시설로 8월 24일 기준 9만 8

천 명이 넘게 다녀가며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 관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해조류 거품, 스팀, 저주파 테라피 등 치유 프로그램 효과가 입소문을 타면서 센터 이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완도를 찾는 모든 분들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해양치유센터에서는 지역 상생 소비자 할인뿐만 아니라 군민 친구, 향우 방문 할인 이벤트 등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완도/장선우 기자

"비효율·불필요 업무 과감히 정리한다" 담양군, 시책 발굴 보고회

예산 절감으로 주민 수요에 재투자, 활력도시 담양 건설 위한 다양한 제안

담양군은 22일 군청 송강정실에서 정철원 군수 주재로 '2026년도 시책 발굴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로 제안된 시책을 공유하며 추진 가능성과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올해 보고회는 신규 시책 발굴보다 변화하는 행정 환경과 주민 기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불필요한 시책, 연례 반복, 유사·중복 사업을 재검토해 과감히 일몰 하고, 군 재

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절감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운영됐다.

보고회에서는 재난 상황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재해위험지구 정비,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 접목 야행 관광공간 조성, 국제명상센터 건립 등이 논의됐다.

또한 농업인 소득 확대를 위한 담양형 기능성 소득작목 육성·보급, 차세대 농업

경영인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평전통시장 재건축, 담양 음식특화농공단지 조성, 제2일반산단 조성사업 등도 검토됐다.

이와 함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하거나 관행적으로 추진된 사업 등 33건의 일몰 시책을 포함해 48건의 예산 절감 방안이 발굴됐다.

군은 이를 통해 1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신규 행정 수요에 전략적으로 재투입할 계획이다.

정철원 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제안된 시책들이 군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며 "절감된 예산은 지역 현안 해결에 재투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양/이종욱 기자

구례군, 5일시장에서 '민생회복 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오늘 쓰는 소비쿠폰, 내일 웃는 지역경제' 주제로 캠페인 실시

전남 구례군이 8월에 개최하는 지역축제와 연계해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비촉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비쿠폰의 신속한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1차 캠페인은 지난 8월 23일 구례읍 5일시장에서 열린 제8회 오매축제 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회 등 지역 사회 단체 30여명이 참여해 '오늘 쓰는 소비쿠폰, 내일 웃는 지역경제'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펼쳤다.

이어지는 2차 캠페인은 오는 8월 28일(목) 구례 5일시장 장날을 전통시장 활력 Day로 정하고 군청 구내 식당을 운영하지



않는 등 전직원이 전통시장으로 나가 직접 장을 보며 소비촉진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행정과 군민이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는 협력 모델"이라며, "작은 소비가 큰 변화를 만드는 힘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라며, "전통시장 활력Day에 직접 참여할 계획이라며 소비쿠폰을 조기에 사용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